



대만 혼하이 정밀, 5년 연속 국내 최다 출원 기록 세워

대만 경제부 산하 지식재산청(IPO)이 발표한 2007 특허통계자료에 따르면, 혼하이 정밀(鴻海精密)이 5년 연속으로 특허출원수와 특허승인수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대만 지식재산청은 2007년 한 해 동안, 전년의 80,988 건보다 다소 증가한 81,820건(최다기록)의 특허 신청을 받았으며, 총 49,007건의 특허를 승인했다.

대만 기업들 중에는 혼하이 정밀이 국내에서 2,424건을 출원함으로써 1위를 차지했고, 공업기술연구원(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이 886건으로 2위, 인벤텍(Inventec)이 797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특허

승인건수에 있어서도 혼하이 정밀이 1,117건의 국내특허를 획득하며 1위를 굳혔고, ITRI가 535건으로 2위, AU 옵트로닉스(AU Optronics)가 349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외국 기업으로는 각각 652건과 642건을 출원한 소니(Sony)와 퀄컴(Qualcomm)이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지난해 1위였던 필립스(Royal Philips Electronics)를 추월했고, 가장 많은 특허를 획득한 외국 기업 상위 3사에는 세이코 엡슨(Seiko Epson)과 소니, 삼성전자가 있었다.

이밖에 학술기관별로는 국립 대만 대학교, 국립 충싱 대학교, 원동과기대학이 각각 최다 출원수로 1, 2, 3위를 차지했다.

출처 : The China Post 2008. 1. 22

DTL, 노키아와 휴대전화통신에 필수적인 특허기술에 관해 라이선스 협약 체결

특허 라이선싱 및 집행 전문회사 제너럴 패턴트 인터내셔널(General Patent Corp. International (GPCI))사가 동사의 고객인 디지털 테크놀로지 라이선싱(Digital Technology Licensing LLC(DTL))과 노키아(Nokia)가 휴대전화에 널리 사용되는 필수적인 특허 기술에 관해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했다.

DTL로서는 이번에 노키아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지금까지 체결한 어떠한 라이선스 계약보다도 규모가 크다고 한다. GPCI의 알렉산더 폴터렉 회장 겸 CEO는 “우리 고객인 DTL을 대신해서 이번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동 라이선스 협약은 DTL의 혁신과 선견지명에 대해 완전한 승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동 특허기술은 휴대전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GSM 표준에 널리 채용되어 있으며, 음성 부호화에 사용되는 음성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인 AMR(적응성 다중 비율) 코덱을 사용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 기술은 휴대전화기가 기존의 휴대전화 송신탑에 탑재된 구 기술과 효과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후방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도 제공한다.

DTL은 버라이즌(Verizon Wireless), T-모바일(T-Mobile), 스프린트 넥스텔(Sprint Nextel), 모토로라(Motorola) 등을 상대로 디지털 출력 변환기(Digital Output Transducer)에 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번에 라이선스 협약을 맺은 노키아는 소송에 관여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출처 : Trading Markets 2008. 1. 19